

성인 정신지체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대처전략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

김 교 연*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요 약》

만 19세~35세 사이의 성인 정신지체인을 자녀로 둔 어머니 158명에 대하여, 양육과제에 대한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과 장애인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어머니가 정서중심대처를 많이 할수록 어머니의 우울과 주관적 부담은 심해지며, 모자관계는 부정적이었다. 어머니가 유용한 사회적 지지가 많다고 느낄수록 어머니의 우울과 주관적 부담은 약했으며, 모자관계는 긍정적이었다. 어머니의 문제중심대처의 정도는 우울과 주관적 부담에는 영향이 없었으며, 모자관계에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자녀를 보호하는 정신지체인 어머니 역시 필요한 문제중심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항시적인 정서중심대처를 하지 않도록 교육과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며, 다각도의 사회적 지원이 주어질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

주제어 : 성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 심리적 안녕감, 대처전략, 사회적 지지

Ⅰ. 서론: 연구의 목적

최근 들어 정신지체인을 돌보는 가족의 중요성이 더 커져가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탈시설화의 진전과 더불어 정신지체인을 돌보는 가족의 역할이 강화되어 왔고, 정신지체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가족이 정신지체인을 돌보는 기간 역시 연장되고 있다. 이처럼 정신지체인이 나이 들어서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정신지체인을 보호하는 가족의 복지,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복지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더구나 이 어머니들은 그들 자신의 생애주기상 장년기나 노년기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교신저자(k2yinyon@hanmail.net)

따라서 오랫동안 장애인 자녀를 양육해 온 성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들은 적응상태가 어떤지, 또한 이런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 부모에 관한 집적된 연구들의 잠정결론은 이 부모들이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결과는 성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에 대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Seltzer & Krauss, 1989). 이처럼 장애인의 부모들이 양호한 적응상태를 보이는 데에는 부모 자신의 특성이나 장애인 자녀의 특성도 영향을 주지만, 심리사회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양육과제에 대한 대처전략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에서도 성인 정신지체인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에 대해 사회적 지지와 대처전략이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와 대처전략을 연구주제로 하는 이유는 이 개념들이 성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들을 설명하는데 이론적, 실천적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우선, 장애인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부모의 특성이나 장애인 자녀의 특성은 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객관적 속성인 반면, 사회적 지지나 대처전략은 실천에서 중재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다. 또한 장애인의 어머니와 같이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에게는 이런 어려움에 대한 대처전략이 일상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대처전략이 중요하며, 양육상 어려움에 대해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있다. 이런 실천적 함의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대처전략은 이론적으로 볼 때도 가장 대표적인 스트레스 완화요인으로 알려져 왔다(Thoits, 1995).

이런 사회적 지지와 대처전략의 중요성으로 인해 장애아동 가족의 경우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성인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수의 연구 외에는(윤이화·탁영란, 1998; 서미경, 2001)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성인 정신지체인 가족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그런 연구들을 통해 성인 정신지체인 부모에게 사회적 지지는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Seltzer & Krauss, 1989; Greenberg, Seltzer, & Greenley, 1993), 대처전략 중 문제중심대처는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그리고 정서중심대처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Seltzer, Greenberg, & Krauss, 1995; Kling, Seltzer, & Ryff, 1997; Kim, et al., 2003; Abbeduto, et al., 2004).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가족지원의 중요성은 공감할 얻고 있다. 하지만 정신지체인 가족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도 대부분 장애아동 가족과 부모에 대한 연구에 머물러 있고 성인 정신지체인 부모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연구경향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길지 않은 점, 그리고 성인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덜 발달된 점과 관련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도 성인기의 삶을

누리는 정신지체인이 더 많아지고 있고, 이런 성인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경험을 아동기의 연구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인기 어머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에게 양육과제에 대한 대처전략이 어머니의 특성이나 장애인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성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에게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특성이나 장애인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성인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Lazarus & Folkman(1984)에 의하면, 사람들이 적응한다는 것은 대략 사회생활의 기능, 생애만족, 그리고 신체적 건강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결과로 알 수 있다. 즉, 적응은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고, 사회적 적응은 사회적 관계를, 심리적 적응은 우울, 불안, 또는 생애만족과 같은 정신건강을 지표로, 그리고 신체적 적응은 신체적 건강을 지표로 한다. 일반인구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적응의 지표는 심리적 안녕감으로서 우울과 불안을 보는 연구가 많고(Park, Folkman, & Bostrom, 2001; Mattlin, Wethington, & Kessler, 1990), 긍정적인 지표로서 생애만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Haley, et al., 1987).

장애인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적응을 심리적 안녕감으로 많이 분석해 왔다. 적응의 지표로서 양육스트레스(Hauser-Cram, et al., 2001; 이삼연, 1999),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고통을 선택하기도 하고(Frey, Greenberg, & Fewell, 1989), 양육의 주관적 부담(Essex, Seltzer, & Krauss, 1999; Kim, et al., 2003)을 선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적응의 지표가 너무 병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지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로 인해(Somerfield & McCrae, 2000), 생애만족 같은 긍정적인 개념을 지표로 사용한다거나(Kling, Seltzer, & Ryff, 1997; Hong, Seltzer, & Krauss, 2001; Seltzer et al., 2004), 보다 사회적 개념인 모자관계(Kim, et al., 2003; Abbeduto, et al., 2004)나 신체증상(Seltzer et al., 2004)을 지표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성인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대처와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볼 때,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심리적 안녕감의 지표는 우울, 보호제공의 주관적 부담,

그리고 모자관계이다. 우울은 정신장애 중 가장 유병율이 높은 장애이기 때문에 흔히 대표적인 정신건강의 지표로 사용되며, 그런 의미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Seltzer, Greenberg, & Krauss, 1995; Kim, et al., 2003; Abbeduto, et al., 2004).

보호제공의 주관적 부담(이하 주관적 부담)은 보호제공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 불안, 우울, 사기박탈, 일반적인 개인자유 상실의 인식(Lawton, et al., 1989)을 의미한다. 주관적 부담은 장애인자녀에 대한 양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어머니들의 심리적 고통을 반영하는 개념으로서, 심리적 안녕감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Essex, Seltzer, & Krauss, 1999; Kim, et al., 2003).

마지막으로 모자관계는 사회적이면서도 긍정적 측면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모자관계는 자녀와 어머니 간에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으로서, 서로에 대해 갖는 긍정적 감정의 유형과 정도이며 이런 감정의 호혜성의 정도로 정의된다(Bengston & Roberts, 1991). 원래 장애인부모 연구에서는 어머니 개인의 스트레스나 우울, 건강이 적응의 주된 지표가 되어 왔지만, 성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에 관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의 지표로 모자관계에 대한 연구관심이 많아지고 있다(Kim, et al., 2003; Abbeduto, et al., 2004).

2. 대처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대처란 개인에게 있어 그 개인이 가진 자원을 넘어서는 외적, 내적 요구를 관리하려는 의식적 노력이다. 또한 대처행동 중 공통된 몇 가지를 묶어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대처전략이라 불린다(Livneh, 2000). 대처전략의 유형화는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지만, 이런 유형화 중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중심대처(problem-focused coping)와 정서중심대처(emotion-focused coping)의 구분이다. 먼저 문제중심대처는 환경이나 사람에게 작용을 가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환경 간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처전략을 일컫는다(Lazarus, 1993). 그리고 정서중심대처는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정서를 개선하고자 하는 대처전략으로 정의된다(Folkman & Moskowitz, 2004).

성인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모든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중심대처의 하위개념은 적극적 대처, 계획하기, 긍정적 재해석이다(Seltzer, Greenberg, & Krauss, 1995; Kim, et al., 2003; Abbeduto, et al., 2004). 적극적 대처는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거나 그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적 단계를 취하는 과정을 말하며, 계획하기는 스트레스 요인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 사고하는 것을 말한다(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긍정적 재해석은 스트레스 요인을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이 대처전략은 원래 Lazarus와 Folkman(1984)에 의해 정서중심대처에 가까운 것으로 개념화된 바 있으나, 이후 그들의 경험연구에서는 일관

되게 문제중심대처로 요인화되었다. 이런 연구결과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긍정적 재해석이 정서조절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하게 하는 인지적 작용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Folkman, et al., 1986; Dunkel-Schetter, Folkman, & Lazarus, 1987;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정서중심대처의 하위개념으로는 감정표출, 부인, 행동적 비관여, 정신적 비관여가 있다(Seltzer, Greenberg, & Krauss, 1995; Kim, et al., 2003; Abbeduto, et al., 2004). 감정표출은 경험 중인 심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표출하는 것을 말하며, 부인은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하는 반응을 말한다. 행동적 비관여는 스트레스 요인을 다루려는 노력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정신적 비관여는 행동적 비관여가 불가능할 때 주로 사용하는 대처전략으로서 스트레스 요인이나 해결노력에 대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이런 대처전략들은 모두 내용적으로 볼 때,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생겨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미리 회피나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발생할 부정적 정서를 피하고자 하는 정서조절의 기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성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대처전략이 심리적 안녕감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해 보면, 우선 어머니들의 문제중심대처가 많을수록 우울수준이 낮고, 정서중심대처가 많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Seltzer, Greenberg, & Krauss, 1995; Kling, Seltzer, & Ryff, 1997; Kim, et al., 2003; Abbeduto, et al., 2004). 또한 어머니들이 문제중심대처를 많이 할수록 주관적 부담이 적었으며, 정서중심대처를 많이 할수록 주관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Essex, Seltzer & Krauss, 1999; Kim, et al., 2003). 성인 정신지체인과 그 어머니와의 모자관계에 대해서도 문제중심대처는 긍정적 영향을, 그리고 정서중심대처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다(Kim, et al., 2003; Abbeduto, et al., 2004).

3.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는 대처자원의 하나로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심리사회적 자원이기도 하다(Thoits, 1995). 사회적 지지는 두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 먼저, 기능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한 사람을 위해 가족원, 친구, 동료 등 중요한 타자들(significant others)이 제공하는 기능을 말하는데, 이 중요한 타자들은 그 사람에게 도구적, 정보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지원 기능들은 높은 상호관련성이 있어, 단일한 요인을 형성하며, 흔히 지각된 사회적 지지라고 명명된다. 또한 이런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오기도 했다(Thoits, 1995).

다음으로, 구조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조직을 말

하며, 여기에는 관계의 수, 관계망 내에서의 역할, 관계망 내에서의 접촉의 빈도, 관계의 밀도와 복잡성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따라서 관계망의 측정을 통해서만 한 개인의 사회고립 또는 사회통합의 정도가 파악될 수가 있다(Thoits, 1995).

그런데 잠재적인 사회적 지지의 원천은 인구집단에 따라 다르다. 그런 관점에서 장애인부모 집단은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다. 장애인부모 집단은 일반인구집단에서 보여지는 가족이나 확대가족, 친구 등의 비공식 지지원 외에도 동료 장애인부모나 그 부모들의 지지집단 등의 비공식 지지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인구집단과는 달리, 장애 서비스기관이나 장애전문가와 같은 공식적 지지원도 있다. 장애인부모들은 이런 비공식 지지원과 공식적 지지원으로부터 물질적,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Seligman & Darling, 1997).

성인 정신지체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해서는 우선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망이 클수록 그들의 우울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Greenberg, et al., 1997). 또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망이 크고 받는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그들의 주관적 부담의 수준도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Seltzer & Krauss, 1989; Greenberg, Seltzer, & Greenley, 1993).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성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에서도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4.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및 장애인 자녀의 특성과 심리적 안녕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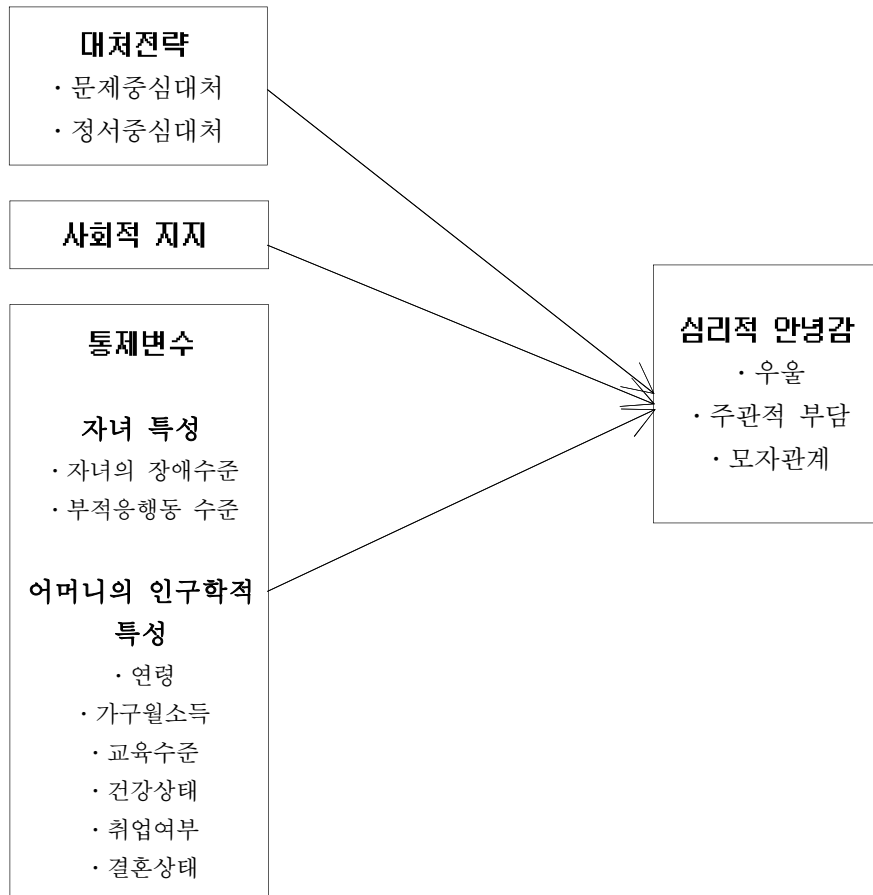
본 연구는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의 독립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나, 통제되어야 하는 변수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 외에도 성인 정신지체인의 특성과 그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역시 어머니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성인 정신지체인을 돌보는 어머니 연구에서는 자녀의 장애수준이 어머니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녀의 장애가 심할수록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Seltzer & Krauss, 1989; Heller, 1993; Smith, 1996). 또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는 요인으로서 자녀의 부적응행동이 있는데, 자녀의 부적응행동이 심할수록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Greenberg, Seltzer, & Greenley, 1993; Seltzer, Greenberg, & Krauss, 1995; Essex, Seltzer, & Krauss, 1999; Kim, et al., 2003; Abbeduto, et al., 2004).

이처럼 장애인 자녀의 장애 특성 외에 정신지체인의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도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마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이 일관된 것은 아닐지라도 대략 어머니의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 결혼상태, 고용상태, 건강상태 등의 특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Seltzer & Krauss, 1989; Essex, Seltzer, & Krauss, 1999; Kim, et al., 2003; Abbeduto, et al., 2004).

이상과 같이 성인 정신지체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련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이론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찰해 보았으며, 이런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는 성인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 문제중심대처는 긍정적 영향을 그리고 정서중심대처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 역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장애인 자녀의 장애 특성과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이런 통제변수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독립적인 영향이 분석되었다.



<그림1> 연구의 분석틀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령이 만 19~35세인 성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인간발달에서 볼 때 만 19세가 아동기를 벗어나는 연령이며 35세까지를 청년기로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정신지체인은 지능지수 상으로는 경계선급(지능지수 71~84)을 포함하여, 장애인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에서 직접서비스 실무자에 의해 정신지체로 판정받았다고 확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연구하기 위해 서베이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정신지체인 인구의 표집틀을 구할 수가 없고, 여러 번의 조사가 불가능한 현실적 한계로 인해 비확률표집과 횡단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표집 대상은 서울과 경인지역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정신지체인의 어머니로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설문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금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만 3~35세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를 연구하는 조사의 일부분으로 수집되었다. 조사는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사전조사는 2005년 1월 31일~2월 15일에 걸쳐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서 정신지체인의 어머니 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사전조사를 통해 평가되고 구성된 설문지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05년 5월 30일~6월 13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 26개에 233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190부가 수거되었다. 수거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32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58부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변수들 중, 변안하고 대상에 맞게 문안을 수정한 대처척도와 주관적 부담 척도, 그리고 요인의 내용을 참고해 연구자가 작성한 모자관계 척도의 경우, 장애인복지를 전공한 교수 5인과,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장애인복지 전문가 1인에게 내용타당도의 평가를 요청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했으며, 평균적으로 6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문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임상전문가- 의사, 심리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5인으로부터 부적응행동 척도에 관한 내용타당도를 평가받았다. 척도의 신뢰도는 문항간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를 통해 확보하였다.

1) 심리적 안녕감

(1) 우울

우울변수의 측정에는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한 한국어판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행동과 느낌을 서술한 20개의 문항에 대하여 지난 한주간 얼마나 자주 이런 느낌을 가졌는지를 질문하여, "거의 드물게(1일 미만)", "때로(1-2일)", "상당히(3-4일)", "대부분(5-7일)"까지의 4개 범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0-3점까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0-6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증상은 더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16점을 우울의 임상적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크로바하의 $\alpha=.909$ 였다.

(2) 주관적 부담(Subjective Burden)

주관적 부담 변수는 Zarit 등(1980)이 작성한 부담척도를 연구자가 응답대상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에 적합하게 수정, 번안하여 측정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용적으로는 보호제공으로 인한 보호제공자의 건강, 심리적 안녕, 재정, 사회생활, 보호제공자와 보호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담척도는 보호제공과 관련된 불편함과 긴장을 서술한 28문항에 대해 얼마나 그렇게 느끼는지를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0)", "거의 그렇지 않다(=1)", "가끔 그렇다(=2)", "자주 그렇다(=3)", "거의 항상 그렇다(=4)"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부담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크론바하의 $\alpha=.86$ 이었다.

(3) 모자관계

이 변수의 측정에는 Bengston과 Schrader(1982)의 the Positive Affect Scale을 활용하였으며, 이 척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대상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존중(respect), 공정함(fairness), 신뢰(trust), 애정(affection), 이해(understanding)의 5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5개에 대하여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5문항,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를 부모가 평가하는 것을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로 하여금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 "거의 아니다(=2)", "아닌 편이다(=3)", "그런 편이다(=4)", "거의 그렇다(=5)", "정말 그렇다(=6)"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모자관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크론바하의 $\alpha=.811$ 이었다.

2) 대처전략(coping strategies)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 각각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대처행동에 관해서는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평소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질문함으로써 대처행동 전반을 측정하였다. 대처행동의 측정은 Carver, Scheir, Weintraub(1989)에 의해 개발된 다차원대처척도(COPE)를 연구자가 번안하되,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특수한 경험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하지 않는다(=1)”, “조금 한다(=2)”, “보통 정도로 한다(=3)”, “많이 한다(=4)”의 4점으로 평정되며, 높은 점수는 특정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13개 하위척도 중, 종교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종교에 의지하기를 제외한 12개 하위척도의 33문항으로 대처척도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COPE은 3~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Carver, Scheir, & Weintraub, 1989), 12개의 하위개념을 다 사용하지 않고,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하위개념만을 사용하였다.

(1) 문제중심대처

이 변수는 적극적 대처(2문항), 계획(2문항), 긍정적 재해석(4문항)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총 8문항의 합산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크론바하의 $\alpha=.828$ 이었다.

(2) 정서중심대처

이 변수는 감정표출(3문항), 부인(2문항), 행동적 비관여(3문항), 정신적 비관여(3문항)의 4개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1문항의 합산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크론바하의 $\alpha=.672$ 였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측정에는 Dunst, Trivette, & Hamby(1994)의 The Family Support Scale(FSS)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성인의 어머니에게 적절하지 않은 항목 1개와 문화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2개 항목을 제외하고 총 15개 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나, 내용검토를 통해 12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척도는 장애인부모에게 잠재적으로 접근가능한 12개의 지지원을 항목으로 하여 특정 기간 동안 이 지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전혀 도움이 안됨(=1)”, “가끔 도움이 됨(=2)”, “대체로 도움이 됨(=3)”, “많이 도움됨(=4)”, “정말 많이 도움됨(=5)”의 5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지지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12개의 지지원은 친정부모, 시부모, 친정의 형제와 친척, 시가의 형제와 친척, 학교/유치원, 교사/사회복지사/치료사,

재활서비스기관, 친구, 장애인 자녀를 둔 다른 부모들, 취미활동모임, 남편, 장애인 자녀 외 다른 자녀들이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크론바하의 $\alpha=.806$ 이었다.

4) 통제변수

(1) 장애인 자녀의 장애특성

① 정신지체인 자녀의 장애수준

장애수준은 1994년 미국정신의학협회(APA)의 정의에 따라(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정신지체를 경도(지능지수 50-70), 중등도(지능지수 35-50), 중도(20-35), 최중도(20이하 또는 측정 불가능)의 4가지로 분류하고, 여기에 경계선급(지능지수 71-84)을 더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어디에 속하는지 기록하도록 하였다. 경계선급(=1), 경도(=2), 중등도(=3), 중도(=4), 최중도(=5)로 부호화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가 심함을 의미한다.

② 정신지체인 자녀의 부적응행동(maladaptive behavior)

부적응행동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방해하는 개인, 가족 또는 단체의 습관적인 행동 또는 행동형태로 정의된다(Accardo & Whitman, 2002). 이 변수는 ICAP(Inventory for Client and Agency Planning)의 부적응행동 척도(Bruininks, et al., 1986)로 측정하였다. 이 부적응행동 척도는 자해하기, 타인에게 해 입히기, 기물 파괴하기, 방해 행동(disruptive behavior), 이상한 행동이나 반복적 행동,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사회관계에서 소극적인 행동, 비협조적인 행동 등 8개 행동에 대해 장애인 자녀가 이 행동들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어머니에게 질문한다. 그런 다음, "전혀 없음(=1)", "월 1회 미만(=2)", "월 1~3회(=3)", "주 1~6회(=4)", "매일 1~10회(=5)", "시간당 1회 이상(=6)"의 범주로 답하게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행동이 더 심각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크론바하의 $\alpha=.73$ 이었다.

(2)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인 자녀와 그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몇가지 인구학적 변수들을 측정하였는데, 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신지체인 자녀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성별, 연령, 장애범주를 포함하였는데, 첫째, 성별은 남, 여로 구분하였으며, 둘째, 연령은 생년월을 표기하도록 하여, 조사시점에서 만 연령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셋째, 장애범주는 정신지체와 다운증후군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신지체인의 어머니에 관해서는 연령, 가구월소득, 교육수준, 결혼상태, 고용상태, 건강상태를 변수로 포함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연령은 만 연령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가구 월소득은 액수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무학, 국졸 또는 중퇴, 중졸 또는 중퇴, 고졸 또는 중퇴, 전문대 졸업, 대졸 또는 중퇴,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결혼상태는 기혼, 별거 또는 이혼, 사별, 기타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어머니의 고용상태는 취업과 비취업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어머니의 건강상태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를 질문하여, “건강이 아주 안좋다(=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건강한 편이다(=4)”, “아주 건강하다(=5)”의 다섯 범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3. 분석방법

첫째, 정신지체인과 그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가 사용하는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석에는 SPSS 12.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특성은 다음 <표1>과 같다. 이들의 특성을 보면, 첫째, 이들의 연령은 40대와 50대가 89.9%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51세이다. 둘째, 가구의 월소득은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평균 283만원이었다. 셋째,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이상이 79.1%이고 평균 교육연수가 12.3년으로 우리나라 40대 여자 평균교육연수인 10.5년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0). 넷째, 결혼상태는 89.9%가 기혼이었다. 다섯째, 어머니들 중 23.4%는 취업하고 있다. 여섯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들은 전체의 69.7%가 보통이상의 건강상태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표1>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158)

	구 분	빈도(명)	비율(%)
연령	40~49세	70	44.3
	50~59세	72	45.6
	60세 이상	12	7.6
	무응답	4	2.5
가구월소득	100만원 미만	5	3.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1	19.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0	25.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6	22.8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1	7.0
	500만원 이상	19	12.0
	무응답	16	10.1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14	8.9
	중학교 졸업 또는 중퇴	14	8.9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81	51.3
	전문대 졸업 또는 중퇴	13	8.2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31	19.6
	대학원 이상	5	3.2
결혼상태	기혼	142	89.9
	이혼 또는 별거	5	3.2
	사별	7	4.4
	기타	1	0.6
	무응답	3	1.9
취업상태	취업	37	23.4
	비취업	113	71.5
	무응답	8	5.1
건강수준	건강이 아주 안좋다	8	5.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6	22.8
	보통이다	69	43.7
	건강한 편이다	35	22.2
	아주 건강하다	6	3.8
	무응답	4	2.5

(2) 성인 정신지체인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정신지체인의 어머니이지만, 연구주제가 성인자녀의 보호와 관련되기 때문에 자녀인 성인 정신지체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어머니들의 정신지체인 자녀들은 첫째, 연령대가 19세~35세로 평균연령이 22.8세였다. 둘째, 남자가 92명(58.2%), 여자가 66명(41.8%)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이들은 모두 정신지체인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운증후군이 33명(20.9%), 정신지체인이 125명(79.1%)이었다. 넷째, 이들의 장애수준은 경계선급(지능지수 71이상)이 27명(17.1%), 경도 정신지체(지능지수 51~70)가 61명(38.6%)으로 경중의 정신지체가 55.7%, 중등도(지능지수 35~50)이상의 중증 정신지체가 43.7%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정신지체인 인구보다는 중중의 정신지체 비율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2> 성인 정신지체인의 특성(N=158)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92	58.2
	여자	66	41.8
장애종류	정신지체	125	79.1
	다운증후군	33	20.9
장애수준	경계선급(지능지수 71이상)	27	17.1
	경도(지능지수 51~70)	61	38.6
	중등도(지능지수 35~50)	53	33.5
	중도(지능지수 20~34)	14	8.9
	최중도(지능지수 20미만)	2	1.3
	무응답	1	0.6

2) 주요변수의 특성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연구의 주제가 되는 주요변수의 응답 특성을 살펴보았다.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는 다음<표3>과 같다. 이 중에서 우울은 16점을 임상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42.7%가 16점 이상의 우울 점수를 나타냈다.

<표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대처전략				
1) 문제중심대처	21.74	4.55	11.0	32.0
2) 정서중심대처	18.00	4.08	9.0	29.0
2. 사회적 지지	28.37	7.51	13.0	56.0
3. 심리적 안녕감				
1) 우울	15.62	9.44	0.0	46.0
2) 주관적 부담	43.53	13.02	8.0	80.0
3) 모자관계	44.89	7.40	26.0	60.0
4. 부적응행동	12.18	4.26	8.0	25.0

2. 분석결과

본 연구는 정신지체인의 어머니들이 성인자녀의 보호와 관련해 겪는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대처전략과 이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갖는 독립적 설명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은 우울, 주관적 부담, 모자관계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대처전략인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인 자녀의 특성 역시 통제변수로서 각각의 회귀식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4>와 같다.

1) 어머니의 우울을 설명하는 변인

성인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우울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설명력은 다음 <표4>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의 설명력을 보면, 정서중심대처와 사회적 지지는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신지체인의 어머니들이 정서중심대처를 많이 할수록 우울수준이 심하고 사회적 지지가 많다고 느낄수록 이들의 우울은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처전략 중 문제중심대처가 어머니들의 우울에 주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정신지체인 자녀와 어머니가 속한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신지체인 자녀의 부적응행동 수준 역시 어머니의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표4>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설명변인

독립변수	우울	주관적 부담	모자관계
	Beta	Beta	Beta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025	.083	-.115
가구소득	-.161*	-.239**	.202*
건강	-.361***	-.179**	.021
교육수준	.035	.055	.056
취업여부	-.029	.041	.022
결혼상태	-.014	.120	-.148*
장애인 자녀의 특성			
장애수준	-.047	.061	-.030
부적응행동	.305***	.491***	-.243***
대처전략			
문제중심대처	.058	-.015	.330***
정서중심대처	.322***	.326***	-.229***
사회적 지지	-.241***	-.156*	.322***
R²	.483	.534	.479

Beta: 표준화 회귀계수

*<.05, **<.01, ***<.001

2) 어머니의 주관적 부담을 설명하는 변인

<표4>를 보면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주관적 부담을 설명하는 변수들이 우울을 설명하는 변수들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정서중심대처와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들의 주관적 부담에 영향을 주었다. 즉, 정서중심대처가 많을수록 어머니들의 주관적 부담 수준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어머니들의 주관적 부담은 적었다. 그러나 문제중심대처는 어머니들의 주관적 부담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통제변수로서는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건강이 역시 주관적 부담의 수준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정신지체인 자녀의 부적응행동이 심할수록 어머니들의 주관적 부담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3) 어머니의 모자관계를 설명하는 변인

성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가 장애인 자녀에 대해 느끼는 모자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표4>에 나타나 있다. 먼저 우울이나 주관적 부담과는 달리, 문제중심대처가 모

자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어머니들이 문제중심대처를 많이 할수록 어머니와 장애인 자녀 간 모자관계는 긍정적이었다. 또한 정서중심대처와 사회적 지지 역시 모자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정서중심대처가 많을수록 모자관계는 부정적이었으며,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모자관계는 긍정적이었다. 통제변수 가운데서는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결혼상태가 모자관계에 영향을 주었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모자관계는 긍정적이었으며, 어머니들이 기혼상태에 있을수록 모자관계는 부정적이었다. 부적응행동 역시 모자관계에 영향을 주었는데, 정신지체인 자녀의 부적응행동이 심할수록 어머니와 자녀간 모자관계는 부정적이었다.

3. 논의: 정신지체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

분석 결과를 통해 성인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문제중심대처가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

문제중심대처는 환경이나 사람에게 작용을 가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환경 간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처전략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문제중심대처는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처전략이다. 또한 이 개념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할 일을 계획하거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분석 결과, 문제중심대처는 성인 정신지체인 어머니들의 우울과 주관적 부담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런 연구결과는 국외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동일하게 성인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대처전략과 우울 간의 관계를 연구한 국외연구 중에는 문제중심대처가 많을수록 우울이 약하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eltzer, Greenberg & Krauss, 1995; Kim, et al., 2003; Abbeduto, et al., 2004). 또한 성인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문제중심대처 전략의 사용이 주관적 부담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Kim, et al., 2003).

이와 같이 문제중심대처가 우울이나 주관적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대처 연구의 경향을 보면 정서중심대처가 적응에 주는 영향은 일관되게 부정적 방향으로 나타나는 반면, 문제중심대처가 적응에 주는 영향은 연구마다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한다(Folkman & Moskowitz, 2004). 이런 경향은 성인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대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문제중심대처가 우울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문제중심대처가 우울이나 주관적 부담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Kling, Seltzer, & Ryff, 1997; Essex, Seltzer, & Krauss, 1999). 장애인 부모의 대처에 관한 국내 연구 중에는 성인 장애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관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은 대처 연구의 경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가 다수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해 내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차이에 관해서는 사회문화적 설명과 생애주기적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설명이라 함은 대다수의 국외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 결과의 차이를 사회적 상황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이다. 즉, 문제중심대처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처라고 볼 때, 장애인 어머니 입장에서는 문제중심의 대처를 했을 때 성과가 있어야 부정적 심적 상태가 완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해결이란 개인의 능력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상황도 중요한 것이다. 문제중심대처의 효과가 국외 연구와 본 연구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사회적 상황의 차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보다 선진적인 사회는 장애인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체계가 더 잘 갖춰져 있어, 문제해결적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고 그것이 긍정적인 정신건강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반면, 이런 사회적 지원 체계가 부족한 우리 사회의 경우, 장애인 어머니들이 문제해결적 노력을 해도 성공의 확률이 낮고 실패가 거듭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제중심대처를 해도 어머니들의 정신건강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정신지체인 어머니들의 문제중심대처가 우울과 주관적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애주기적 설명도 가능하다. 국내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경우, 문제중심의 대처가 양육스트레스나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다(이삼연, 1999; 이숙자, 2005; 김교연, 2006). 이 중 어떤 연구도 확률표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차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장애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연구와 성인 장애인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 간에 나타난 차이에 대해 생애주기적 관점의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인 어머니의 문제중심대처가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생애주기가 어머니에게는 자녀를 양육해 온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자녀를 오래 양육해 왔다는 것이 장애인의 어머니에게는 좌절의 누적일 수 있다. 따라서 성인 장애인의 어머니들은 문제중심대처가 별 효능이 없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런 문제중심대처는 이들의 정신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정반대의 설명도 가능하다. 즉, 성인의 어머니들은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충분히 익숙해져, 자녀와 관련된 어려움에 어떻게 행동하든 이에 별다른 정신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장노년기에 들어선 이 어머니들에게는 장애인 자녀 양육 외에 이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삶의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 퇴직의 준비, 자녀의

출가, 건강문제, 조부모 역할하기 등과 같은 생애사건들은 이 어머니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상반된 설명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처럼 문제중심대처가 우울과 주관적 부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모자관계, 즉 모자간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관계는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변수이지만, 어머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장애인 자녀의 적응에 대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변수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처를 많이 할수록 어머니가 성인 장애인 자녀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친밀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친밀감은 장애인 자녀로 하여금 가정과 사회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천적으로 볼 때, 성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 가능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2) 정서중심대처가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

정서중심대처는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정서를 개선하고자 하는 대처전략이라고 앞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자녀와 관련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거나 상황을 부정하거나 또는 어려운 일에 대해 정신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아예 관여하지 않는 행동으로 이 개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정신지체인 어머니가 정서중심대처를 많이 할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심하고 주관적 부담이 많았으며, 어머니가 느끼는 모자관계는 더 부정적이었다. 이처럼 정서중심대처는 어머니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성인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대처를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어머니들의 대처전략이 우울이나 주관적 부담에 주는 영향을 연구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서중심대처는 우울과 주관적 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Seltzer, Greenberg & Krauss, 1995; Kling, Seltzer, & Ryff, 1997; Essex, Seltzer, & Krauss, 1999; Kim, et al., 2003; Abbeduto, et al., 2004). 따라서 실천적으로 볼 때는 성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들이 자녀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을 때,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 다거나 비관여하는 전략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도움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심리사회적 대처자원으로서, 장애인 부모에게도 그 유용성이 입증되어 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축소된다고 한다(Thoits, 1995). 따라서 정신지체인의 어머니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변화는 없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실제 성인 장애인의 보호제공자에 대한 몇몇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Heller, 1993; Smith, 1996).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성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이 어머니들의 우울이 약하고, 주관적 부담이 적으며, 모자관계가 더 긍정적이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성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가 가진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그들의 우울이나 주관적 부담에 영향을 준다고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Seltzer & Krauss, 1989; Greenberg, Seltzer, & Greenley, 1993).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성인기 자녀를 둔 장애인의 어머니에게도 사회적 지지는 여전히 유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한 국내연구에 의하면(최선경, 2006), 성인 정신지체인의 가족들도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족 전체와 관련된 건강관련 부모교육, 가정방문식 상담, 형제간 갈등 해결책을 제시해 줄 전문가 상담, 부모사후 가족갈등의 예방적 상담, 정신지체인 성 상담, 정신지체인의 예후를 예견하고 설계해 줄 전문가 상담, 후견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요구함을 볼 때, 과연 성인기 정신지체인의 가족에게 필요한 특별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실천적으로는 정신지체인의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이런 유용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장애아동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영향이 크다고 알려진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가 성인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주는지 밝히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우울, 주관적 부담, 모자관계로 구체화하였으며, 정신지체인 어머니가 사용하는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가 장애인 자녀의 특성이나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만 3세~35세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에 대한 서베이 연구의 부분으로 실시되었으며, 만 19세~35세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 15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독자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들이 정서중심대처를 많이 할수록 우울과 주관적 부담이 많았으며, 모자관계는 부정적이었다. 또한 유용하다고 느끼는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우울과 주관적 부담이 적었으며, 모자관계는 긍정적이었다. 문제중심대처의 경

우, 우울과 주관적 부담에 대한 영향은 없었지만, 문제중심대처를 많이 할수록 모자관계는 긍정적이었다. 통제변수로 다루어졌지만, 자녀의 장애특성 중 부적응행동은 어머니의 우울이나 주관적 부담 그리고 모자관계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는 가구의 소득과 어머니의 건강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가 보다 나은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서중심의 대처를 적게 하고, 또 장애인 자녀와 더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반드시 문제중심대처를 하도록 상담이나 부모교육을 통해 원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신지체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해 필요한 공식적 지원이 주어져야 하며, 비공식적 관계망을 통해서도 유용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실천가는 가족을 지원하고 비공식적 관계망의 수립과 유지를 원조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성인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장애인의 부모나 가족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성인 정신지체인의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힌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다뤄진 바 없는 모자관계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새로운 차원에서 보다 풍부하게 설명했다는 것도 의의로 들 수 있겠다.

이런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확률표집을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전체 정신지체인의 어머니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서베이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추론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는 주의를 요한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성인 장애인 부모의 대처전략을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대처전략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문제중심대처의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 관해서도, 성인기 장애인의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심층적 연구들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양적 방법과 더불어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교연(2006). 정신지체아동 어머니의 양육상 어려움에 대한 대처과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서미경(2001). 성인정신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에 관한 연구- 정신질환자 부모와 정신지체인 부모의 비교. **신경정신의학**, 40(3), 443-451.
- 윤이화·탁영란(1998). 정신지체인 가족의 적응. **간호발전연구소지**, 3(1), 53-77.

- 이숙자(2005).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적극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 이삼연(1999). 장애아모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8, 180-205.
- 전경구 · 이민규(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1(1), 65-76.
- 최선경(2006). 성인 정신지체인 가족의 부양부담과 가족지원서비스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Abbeduto, L., Seltzer, M. M., Shattuck, P., Krauss, M. W., Orsmond, G., & Murphy, M. M. (2004).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ping in Mothers of Youths with Autism, Down Syndrome, or Fragile X Syndrome.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9(3), 237-254.
- Accardo, P. J. & Whitman, B. Y. (2002). Dictionary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여광웅 외 공역(2003). **발달장애용어사전**. 학지사.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 이근후 외 역(1995).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DSM-IV**. 서울: 하나의학사.
- Bengston, V. L., & Roberts, R. E. L. (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56-870.
- Bengston, V. L., & Schrader, S. S. (1982). Parent-Child Relations. In D. J. Mangen & W. A. Peterson (Eds.).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Vol. 2. Social Roles and Social Participation(pp. 115-155)*.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ruininks, R. H., Hill, B. K., Weatherman, R. F., & Woodcock, R. W. (1986). *Inventory for Client and Agency Planning(ICAP)*, Riverside Publishing.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67-283.
- Dunkel-Schetter, C., Folkman, S., & Lazarus, R. S. (1987). Correlates of Social Support Recei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1), 71-80.
- Dunst, C. J., Trivette, C. M., & Hamby, D. W. (1994). Measuring Social Support in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In C. J. Dunst, C. M. Trivette, & A. G. Deal (Eds.). *Supporting and Strengthening Families, Vol. 1: Methods, Strategies and Practices(pp. 152-161)*, Brookline Books.
- Essex, E. L., Seltzer, M. M., & Krauss, M. W. (1999). Differences in Coping Effectiveness and Well-Being among Aging Mothers and Fathers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4(6), 545-563.
- Folkman, S. & Moskowitz, J. T. (2004). Coping: Pitfalls and Promi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745-774.
-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92-1003.
- Frey, K. S., Greenberg, M. T., & Fewell, R. R. (1989). Stress and Coping among Parents of Handicapped Childre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4(3), 240-249.
- Greenberg, J. S., Seltzer, M. M., & Greenley, J. R. (1993). Aging Parent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The Gratifications and Frustrations of Later-life Caregiving, *The Gerontologist*, 33(4), 542-550.

- Greenberg, J. S., Seltzer, M. M., Krauss, M. W., & Kim, H. W. (1997). The Differential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ging Mothers of Adults with Mental Illness or Mental Retardation. *Family Relations*, 46, 383-394.
- Haley, W. E., Levine, E. G., Brown, S. L., & Bartolucci, A. A. (1987). Stress, Appraisal, Coping,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Adaptational Outcome Among Demented Caregivers. *Psychology and Aging*, 2(4), 323-330.
- Hauser-cram, P., Warfield, M. E., Shonkoff, J. P., & Krauss, M. W. (2001). Children with Disabilities: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 Development and Parent Well-being.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6(3), Serial No. 266.
- Heller, T. (1993). Aging Caregiver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hanges in Burden and Placement Desire. In K. A. Roberto (Ed.), *The Elderly Caregiver: Caring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pp.21-38), Sage Publications.
- Hong, J., Seltzer, M. M., & Krauss, M. W. (2001). Change i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Mothers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Family Relations*, 50, 154-163.
- Kim, H. W., Greenberg, J. S., Seltzer, M. M., & Krauss, M. W. (2003). The Role of Coping in Maintain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other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Mental Illnes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7(4/5), 313-327.
- Kling, K. C., Seltzer, M. M., & Ryff, C. D. (1997). Distinctive Late-Life Challenges: Implications for Coping and Well-Being, *Psychology and Aging*, 12(2), 288-295.
- Lawton, M. P., Kleban, M. H., Moss, M., Rovine, M., & Glicksman, A. (1989). Measuring Caregiving Appraisal.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44(3), 61-71.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김정희 역. **스트레스, 평가 그리고 대처**. 서울: 대광문화사.
- Lazarus, R. S. (1993). Coping Theory and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Psychosomatic Medicine*, 55, 234-247.
- Livneh, H. (2000). Psychological Adaptation to Cancer: The Role of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66(2), 40-49.
- Mattlin, J. A., Wethington, E., & Kessler, R. C. (1990). Situational Determinants of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 103-122.
- Park, C. L., Folkman, S., & Bostrom, A. (2001). Appraisals of Controllability and Coping in Caregivers and HIV+ Men: Testing the Goodness-of-Fit Hypothe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3), 481-488.
- Seligman, M., & Darling, R. B. (1997). *Ordinary Families, Special Children: A Systematic Approach to Childhood Disability*, New York: Guilford Press.
- Seltzer, M. M., & Krauss, M. W. (1989). Aging Parents with Mentally Retarded Children: Family Risk Factors and Sources of Support.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4, 303-312.
- Seltzer, M. M., Greenberg, J. S., & Krauss, M. W. (1995). A Comparison of Coping Strategies of Aging Mothers of Adults with Mental Illness or Mental Retardation. *Psychology and Aging*, 10(1), 64-75.
- Seltzer, M. M., Greenberg, J. S., Floyd, F. J., & Hong, J. (2004). Accommodative Coping and Well-being of Midlife Parents of Children with Mental Health Problems 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2), 187-195.
- Smith, G. C. (1996). Caregiving Outcomes for Older Mothers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A Test of the Two-Factor Mod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y*

- and Aging*, 11(2), 353-361.
- Somerfield, M. R., & McCrae, R. R. (2000). Stress and Coping Research: Methodological Challenges, Theoretical Advances, and Clinical Applications. *American Psychologist*, 55(6), 620-625.
- Thoits, P. 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Extra Issues, 53-79.
- Zarit, S. H., Reever, K. E., & Bach-Peterson, J. (1980). Relatives of the Impaired Elderly: Correlates of Feelings of Burden. *The Gerontologist*, 20(6), 649-655.

Coping strategie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ging mothers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Kim, Gyo-Yeon

Sunmoon University

<Abstract>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158 aging mothers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were examin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were predictors of maternal well-being controlling for maternal and adult child characteristics. Greater use of emotion-focused coping predicted lower levels of maternal psychological well-being, whereas Greater use of problem-focused coping is only related to higher qualit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 and adult child. Greater amoun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predicted higher levels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e present study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in the lives of aging mother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Key words: mothers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coping strategies, social support